

[1~8] 《겁쟁이 에버그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 에버그린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엄마가 만든 수프를 가장 좋아한다.
- ㉡ 토끼 브라이어, 두꺼비 스쿠어트와 친구이다.
- ㉢ 갈매나무숲 떡갈나무 꼭대기 작은 집에 산다.
- ㉣ 시끄러운 소리, 폭풍우, 낯선 동물 등을 싫어한다.
- ㉤ 두려운 게 많아서 침실 창문을 커튼으로 꼭꼭 가린 채 숨어 지낸다.

(정답:㉡)

2. 에버그린이 오크 할머니 댁에 갈 때 겪은 일만 모두 고른 것은?

- ㉠ 집을 나설 때, ‘우르르 쿵’ 하는 폭풍우 소리를 들었다.
- ㉡ 숲을 지나며 낯선 소리를 들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 ㉢ 바위 틈에 끼어 움짱달짝 못 하는 브라이어를 도와주었다.
- ㉣ 오크 할머니 집 근처에서 엠버를 만나 함께 숲을 둘러보았다.
- ㉤ 징검돌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스쿠어트를 구해 주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③)

3. 에버그린이 밑줄 친 부분처럼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갈매
나무숲이 그전과 무척 달라
보였지요.

- ① 심부름하는 동안 갈매나무숲을 다녀 보아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 ② 갈매나무숲에서 들었던 낯선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 ③ 처음으로 혼자 간 갈매나무숲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았기 때문에
 - ④ 심부름을 마친 뒤 엠버 등에 타고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 ⑤ 무서운 곳이라 여겼던 갈매나무숲을 직접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 (정답:④)

4. 이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쓸 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에버그린이 첫 심부름을 떠나는 길을 보며 나도 처음 해 보는 일에 긴장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 ② 폭풍우가 치는데 두 번째 심부름을 보내는 엄마는 이웃만 챙겨 주고 에버그린에게는 냉정하다.
- ③ 그림 곳곳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에버그린의 모습을 찾거나 에버그린의 생생한 표정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 ④ 숲속에서 여러 동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으아아악”, “아으아악”, “꽤액” 하는 각자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 웃겼다.
- ⑤ 에버그린을 가장 놀라게 한 곰이 오코 할머니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흥미로웠고, 에버그린의 두 번째 심부름 이야기도 궁금했다.

(정답:②)

5.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에버그린, 너는 () 다람쥐야.”

- ① 엄마 부탁을 잘 들어주는, 착한
- ② 자신감 있게 자기 할 말을 다하는, 당당한
- ③ 갈매나무숲에서 굉장한 모험을 하고 온, 멋진
- ④ 새로운 곳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호기심이 많은

- ⑤ 자기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책임감 강한
(정답:④)

6. 밑줄 친 낱말의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도토리 뚜껑이 벗겨졌어요.
② 에버그린은 털이 곤두섰지요.
③ 반짝이는 개울물로 목을 촉였어요.
④ 에버그린은 이빨이 턱턱 부딪쳤어요.
⑤ 수프를 들고 있다는 걸 깜박 잊었어요.

(정답:①)

7. 이 책의 에버그린과 아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의 첫 심부름〉은 만 5세 이하의 어린이가 혼자서 첫 심부름에 나서고, 그 과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 오기, 물건 배달하기, 세탁소에 빨래 맡기기…. 가족을 도울 수 있는 2~3개 정도의 과제가 어린이에게 주어진다.

심부름을 까먹고 신나게 노는 어린이, 씩씩하게 나섰다가 겁을 먹고 길에서 20분 넘게 서 있는 어린이, 집으로 몇 번이나 되돌아가는 어린이…. 어린이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열심히 생각을 짜내기도 하며 처음으로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고자 노력한다.

심부름 두 개 중 하나를 완수하지 못한 어린이는 속상해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주며 달래 보려고 하지만, 어린이는 기어이 그 과제를 직접 해내고자 다시 집을 나선다. 마침내 심부름을 마친 어린이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때, 그 얼굴은 집을 처음 나설 때보다 분명히 성큼 자라 있다. 중간에 포기한 어린이조차, 실패가 아니라 시도를 통해 성장한다.

- 〈경향신문〉(2022.05.27.), 재구성 -

- ① 에버그린과 아이들은 모두 처음 심부름을 해 본 경험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중간에 포기한 아이도 실패라고 하지 않는 것은 심부름을 하는 시도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③ 에버그린과 아이들은 앞으로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심부름을 해야 할 때 예전과 다르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것이다.
④ 오희 할머니께 수프를 드리고 집에 도착한 에버그린과 첫 심부름에 성공해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모두 뿌듯한 마음일 것이다.
⑤ 에버그린과 아이들이 심부름을 하면서 힘겨운 상황에 빠졌을 때에는 자신감을 키워 주기 위해 어른들이 대신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정답:⑤)

8. 이 책과 아랫글의 등장인물을 비교하며 이야기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마음 착한 개구리가 벌* 건너 형에게 쌀을 얻으러 길을 떠난다.

가는 길에 개구리는 여러 동물을 만나는데,

발을 다쳐 우는 소시랑게 발을 고쳐 주고,

길 잃은 방아깨비 길 찾아 주고,

구멍에 빠진 쇠똥구리 끌어내 주고,

풀에 걸린 하늘소 풀어 주고,

물에 빠진 개똥벌레 건져 주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형네 집에 겨우 도착해 쌀 한 말을 얻어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해는 저서 캄캄하고 길은 멀고 짐은 무겁고 개구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낮에 도와주었던 개똥벌레가 길 밝혀 주고,

하늘소가 짐 받아 지고,

쇠똥구리가 소똥 굴려 길 치워 주고,

방아깨비가 쌀 짊어 주고,

소시랑게가 밥 짓고,

하나씩 나타나 개구리를 도와주고 밥 한 솥을 즐겁게 나누어 먹었다.

- 《개구리네 한술밥》(꿈소담이), 재구성 -

*벌: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

- ① 에버그린과 개구리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모습이 닮았다.
- ②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동물을 만났을 때 도와준 에버그린과 개구리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 ③ 《개구리네 한술밥》의 동물들처럼 서로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에버그린 엄마의 수프만 받아먹는 갈매나무숲의 동물들은 자기만 생각한다.
- ④ 에버그린의 도움을 받은 엠버, 낮에 개구리에게 도움을 받은 소시랑게와 개똥벌레, 쇠똥구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은혜를 갚았다.
- ⑤ 에버그린의 엄마가 오코 할머니를 위해 수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다른 동물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은 다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정답:③)

[9~16] 《고양이 분식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9. 고양이 분식점 메뉴와 관련된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기본 라면: 조리법대로 물 양과 시간을 맞춰서 끓인 것으로, 가게 앞 벤치에서 찬바람을 맞던 아이에게 늦은 점심으로 대접한 음식이다.
- ② 토닥토닥 주먹밥: 소금으로 간을 한 밥에 잘게 찢은 김,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뭉친 것으로, 산소에 갔다가 들르는 아주머니와 딸에게 만들어 주었다.
- ③ 진심 떡볶이: 할머니께서 미리 사다 놓은 고추장을 풀고 떡과 어묵, 양념을 넣어 끓인 것으로, 구두장이며 매운 것을 좋아하는 아저씨가 주문한 음식이다.
- ④ 고양이 김밥: 콩치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김밥으로, 머리를 묶은 남자아이가 그냥 너만의 요리를 하면 된다고 말해 주어서 만들게 되었다.
- ⑤ 함께 만두: 밀가루 반죽과 만두소만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만들어 썰 내는데, 학교 축제 때문에 싸우던 아이들이 함께 만두를 만들며 재미있어했다.

(정답:③)

10. ㉠과 ㉡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나비는 아주 오랫동안 엄마를 불렀어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비는 할머니가 데워 준 우유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나비가 깜짝 놀라 깬 때마다 가만가만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 아이가 나비를 보며 방긋 미소 지었어요.
“조금 싱겁지만 이걸로 충분해.”
간을 못 맞추다니 나비는 미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괜히 나서서 실망만 줬나 봐.”
㉡“괜찮아. 괜찮아.”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손을 내저었어요.

	㉠	㉡
①	안심하고 잠을 더 자도 돼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②	앞으로는 내가 보살펴 줄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았어
③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잖아
④	편안하게 잘 지내면 좋겠구나	주먹밥을 만들어 주어서 고마워
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올 거야	처음에는 음식을 못하는 것이 당연해

(정답:⑤)

11. 분식점에 다녀간 인물들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고 할 때, 알맞지 않은 것은?

질문: 분식점은 어떤 곳이었나요?

	인물	대답
①		아빠에게 화가 난 마음이 풀어지면서 아빠가 기본 연습만 시키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 준 곳이에요.
②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준 곳이에요.
③		딸과의 갈등 때문에 내 삶이 못나 보였는데 진심을 담아 구두를 만드는 일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된 곳이에요.
④		산만하다고 늘 잔소리를 듣던 나에게 짹짹 양말을 보고 웃어 주고 용감하다고 인정해 주어서 행복함을 느낀 곳이에요.
⑤		파, 부추, 김치같이 싫어하는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도 친구와 함께 먹으면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은 곳이에요.

(정답:⑤)

12. 이 책을 읽고 독서 일기를 쓸 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024년 6월 ○○일 날씨: 사막처럼 더웠음
제목: 멋진 고양이, 나비를 만난 날
‘고양이 분식점’을 읽었다. ㉠고양이가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표지 그림 다음에 차례가 메뉴판처럼 쓰여 있어서 재미있었다. 고양이 나비가 분식점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려받은 분식점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 청소하는 나비가 참 냉정해 보였다. ㉢그러나 나비가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정성껏 요리해 줄 때는 나도 그 음식을 먹어 보고 싶었다. ㉣나비가 밤을 새워 연습해서 콩치 김밥에 성공했을 때는 노력하는 태도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양이 분식점은 앞으로 단골손님이 많은 가게가 될 것 같다. 고양이 분식점이 잘되면 좋겠다~~냥!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②)

13. 밑줄 친 낱말의 반대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생각보다 간단해서 나비는 자신감이 솟았어요. → 쉬워서
 ② 아저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 다정하게
 ③ 나비는 잘 마른 행주를 차곡차곡 개었어요. → 젖은
 ④ 나비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 흥분한
 ⑤ 여자아이가 통명스런 얼굴로 대꾸했어요. → 상냥한

(정답:①)

14. 문장을 <보기>처럼 알맞게 띄어 읽은 것은?

<보기> ▶ 글의 뜻이 잘 드러나게 띄어 읽는 방법 • 한 문장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기 •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길면 한 번 더 쉬어 읽기 예) 따뜻한 온기가√온몸 구석구석√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 ① 마늘은√추위에 강하니 아무√걱정 없어요.
 ② 장독대 옆으로√눈 덮인 작은√텃밭이 보였어요.
 ③ 비닐 터널 속√부추와√시금치는 파릇파릇했어요.
 ④ 뒤뜰에는√크고 작은 향아리들이√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⑤ 하얀 눈 속에√대파가 초록 머리를√빠죽 내밀고 있었어요.

(정답:④)

15. [가]와 [나]를 읽고 나비의 행복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가]

행복이란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음 짓는 것. 행복했던 일을 생각하며 다시 행복해하는 것. 행복이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밥을 먹을 때, 저녁밥을 먹으며 즐겁게 얘기할 때. 행복이란 마음이 기쁨으로 환해지는 것.

- 《아름다운 가치 사전》(한울림어린이), 재구성 -

[나]

“아, 이제 알겠어. 할머니가 분식점을 물려주신 이유를…….”

나비는 할머니가 짜 주신 빨간 목도리를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거야.”

- 《고양이 분식점》 -

- ① [가]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고 평범한 것이다.
- ② 할머니께서는 나비가 [가]와 같은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서 분식점을 물려주신 것이다.
- ③ 나비가 손님들과 할머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옛날 사진을 보며 웃는 것처럼 행복하겠다.
- ④ 자신이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비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 ⑤ 점점 요리 실력이 늘어 최고의 요리사로 성공했을 때 나비는 할머니가 계실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이다.

(정답:⑤)

16.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음식에 대해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옛날에는 식사를 준비하는 데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끼니마다 밥을 했고, 장 담그는 일은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식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라면처럼 짧은 시간에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인기를 끌고, 식당에서 사 먹는 경우가 늘었지요.

불고기피자, 김치파스타처럼 다른 나라 음식을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꾸는 퓨전 (fusion-함께 섞어 새롭게 만든 것) 음식도 늘고 있어요. 반대로 떡케이크처럼 우리 음식을 서양식으로 바꾼 음식도 있어요. 요즘은 비빔밥, 불고기, 갈비, 김치 같은 우리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거든요.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음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 《재미있는 의식주 이야기》(가나출판사), 재구성 -

- ① 할머니 음식을 손님들이 좋아한 것은 텃밭에서 기른 재료를 이용해 정성을 들여 만들었기 때문이구나.
- ② 현대에는 인스턴트 식품도 많고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어서 옛날보다 식생활이 많이 편리해졌네.
- ③ 퓨전 요리가 유행하더라도 나비는 계속 할머니의 방식대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야 해.
- ④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전통 음식은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 ⑤ 다양한 퓨전 요리를 보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면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겠네.

(정답:③)

[17~24] 《구렁이에 빠졌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7. 이 책의 내용과 다른 것은?

- ㉠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자 아기 여우는 친구들과 소풍을 못 가게 될까 봐 마음을 졸였다.
- ㉡ 소풍을 가기로 한 날 해가 뜨자 아기 여우는 과자를 굽고 꽃차를 유리병에 담아 집을 나섰다.
- ㉢ 세 갈래 길에서 아기 토끼를 만난 아기 여우는 너무나 기뻐서 강충거리며 뛰었다가 구렁이에 빠졌다.
- ㉣ 아기 여우와 토끼가 구렁이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함께 소풍을 가기로 한 아기 돼지와 곰도 차례로 구렁이에 빠졌다.
- ㉤ 구렁이에서 무사히 나온 아기 여우와 곰과 토끼와 돼지는 가장 가까운 여우네 집으로 달려가서 따뜻한 물로 씻은 다음 함께 잠이 들었다.

(정답:㉢)

18. 구렁이에서 아기 동물들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고른 것은?

- ㉠ 구렁이를 메꾸려고 구렁이 벽을 허물어 흙을 쌓았다.
- ㉡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로 나뭇가지 당기기 놀이를 했다.
- ㉢ 아기 돼지 머리에 떨어진 밤 한 알을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 ㉤ 모두 함께 모여 진흙을 뭉쳐 여러 동물의 모습을 만들며 놀았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②)

19.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바르게 짐작한 것은?

아기 여우와 돼지와 토끼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통나무를 옮겼어요. 통나무는 몹시 무거웠어요. 거친 나무껍질 때문에 살갓이 까지고 뽀족한 나뭇가지가 어깨를 파고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투덜대지 않았어요.
“곰아, 비켜! 구렁이에 통나무를 떨어뜨릴 거야.”
“벽에 딱 붙어 있어.”
“바구니를 써. 맞으면 안 되니까.”
모두 한마디씩 했어요.

- ① 빨리 통나무를 옮겨야 거친 나무껍질 때문에 생기는 상처를 막을 수 있어서
- ② 더 위험해지기 전에 아기 곰을 구덩이에서 빨리 꺼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 ③ 서둘러서 통나무를 내려 주지 않으면 아기 곰이 투덜거릴 것 같아서
- ④ 빗속에서 통나무를 안전하게 나르는 게 몹시 힘들어서
- ⑤ 비를 너무 많이 맞으니 말할 기운이 없어서

(정답:②)

20. ㉠과 ㉡의 아기 돼지가 한 말을 알맞은 목소리로 읽은 것은?

- ㉠“내 거야. 내 머리에 떨어졌고 내가 주웠어.”
아기 돼지가 등 뒤로 밤을 감추었어요. 밤은 작아서 나누면 콩만큼 작아질 거예요. 게다가 곰도 사탕을 혼자 먹었고요. 아기 돼지는 밤을 꼭 쥐었어요.
- 아기 돼지가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곰아, 나는 깊은 물이 싫어. 나, 나는 헤엄을 못 치니까. 내가 먼저 나가도 돼?”

	㉠	㉡
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초조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②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낮고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③	높고 우렁찬 목소리로	작고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④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느리고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⑤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더듬대고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정답:①)

21. 이 책을 읽고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헤엄을 잘 쳐서 물이 무섭지 않다고 한 아기 곰은 잘난 척하고 으스대기 좋아하는 것 같아.
- ② 아기 동물들의 특징을 잘 살린 그림이 귀여우면서도 걱정하거나 무서워하는 감정이 잘 느껴졌어.
- ③ 아기 동물들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같이 협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 ④ 제일 먼저 바구니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두려움을 느낀 토끼가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 주는 친구들이 멋지다고 생각했어.
- ⑤ 구덩이에 빠진 데다가 비까지 맞았지만 아기 동물들에게는 잊지 못할 소풍이 되었을 테니까 나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풍을 가고 싶어.

(정답:①)

22. ㉠~㉣에 들어갈 흉내 내는 말로 알맞은 것은?

(㉠), 아기 돼지가 입맛을 다셨어요.
(㉡) 움직이는 볼, (㉢) 굴러다니는 사탕 소리, 달콤한 냄새.

	㉠	㉡	㉢
①	꿀꺽	싹룩싹룩	와글와글
②	꿀꺽	오물오물	둥글둥글
③	쩍쩍	후루룩후루룩	달각달각
④	쩍쩍	싹룩싹룩	둥글둥글
⑤	쩍쩍	오물오물	달각달각

(정답:⑤)

23. 아랫글을 읽고 책 속 동물들의 행동을 떠올리며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리빙스턴이 메마른 초원을 탐험할 때였어. 며칠을 걸어도 강이나 호수가 나오지 않는 거야. 결국 뜨거운 햇볕에 탐험대가 가진 물은 떨어지고 말았지. 리빙스턴은 자기가 가진 마지막 물 한 병을 대원들과 나누어 먹기로 결심했어.
“이게 마지막 물입니다. 다른 대원들을 위해 조금씩만 마시고 넘겨 주세요.”
대원들은 물을 돌려 가며 한 모금씩 마셨어. 마지막으로 리빙스턴에게 물병이 돌아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

물병에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야. 모두 다음 사람을 위해 마시는 척만 하고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았던 거지.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분명 신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힘을 낸 리빙스턴과 탐험대는 다음 날 마침내 강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게 되었지.

- 《마음에 힘을 주는 멘토 1》(글뿌리), 재구성 -

• 데이비드 리빙스턴(1813~1873): 남아프리카를 탐험하며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강을 발견한 영국의 탐험가.

- ① 리빙스턴과 대원들, 그리고 아기 동물들은 모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졌었구나.
- ② 그런 상황에서도 리빙스턴과 대원들이 모두 다음 사람을 위해 물을 양보하는 배려심에 감동받았어.
- ③ 물을 무서워하는 아기 돼지에게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 순서를 양보한 아기 곰도 친구를 배려했다고 생각해.

- ④ 구덩이에 떨어진 밤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덩치 큰 아기 곰에게 가장 작은 조각을 준 아기 돼지는 배려심을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
- ⑤ 서로를 위하는 배려심이 힘을 북돋아 주어 다음 날 대원들이 강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기 동물들도 서로 배려하며 구덩이를 탈출할 수 있었어.

(정답:④)

24.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빅터와 소냐가 자전거를 타고 교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야.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하필 소냐의 바퀴에 구멍이 나고 말았어.



빅터와 소냐는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했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갖고 있던 자원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냈지.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적이면서도 논리 정연하게 생각한 거야.

- 《어린이 인문학 교실》(생각의날개) -

- ① 빅터는 껌이 어딘가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 자전거의 바퀴 구멍을 막았다.
- ② 아기 여우는 버드나무 가지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길게 늘어난 만큼 거꾸로 당겨진다는 성질을 이용해 구덩이에서 탈출했다.
- ③ 빅터가 가방 속에 있던 풍선껌을 이용한 것처럼 아기 동물들은 주변에 있던 커다란 통나무를 사다리로 이용해 아기 곰을 구했다.
- ④ 포도잼을 만들 때 냄비 가운데 생기는 구멍을 떠올린 아기 토끼의 생각은 구덩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므로 창조적이지 않다.
- ⑤ 빅터와 아기 여우처럼 자신이 알고 있거나 알게 된 주변 사물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④)

[25~33] 《마이너 도사의 쓰레기 줄여줄여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5. 책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한 것은?

- ①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한 생명들이 차사 뒤를 따라 높고 높은 하늘나라로 줄줄이 올라왔다.
- ②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제가 차사에게 그 이유를 묻자, 쓰레기가 늘어 지구 환경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 ③ 상제는 하늘나라의 환경을 관리하는 마이너 도사에게 사흘간의 시간을 주며 지구 환경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아 오라고 명했다.
- ④ 미리 기다리고 있던 요정 바르바를 데리고 지구로 내려온 마이너 도사는 옛날과 너무 달라진 지구의 생활 모습이 신기해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녔다.
- ⑤ 마이너 도사는 바르바와 함께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을 찾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 100일 동안 골똘히 생각한 끝에 ‘마이너 도사의 쓰레기 줄여줄여법’을 썼다.

(정답:④)

26. ㉠~ ㉣ 중, 마이너 도사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찍은 사진이 아닌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②)

27. 상제의 물음에 답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황새: 어디선가 날아온 비닐봉지에 온몸이 갇힌 채 숨도 못 쉬고 고통스러웠어요.
- ② ㉡ 물개: 시간이 흐를수록 목에 감긴 비닐 끈이 점점 조여 오고 숨이 막혔어요.
- ③ ㉢ 새끼 엘버트로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물고기인 줄 착각해 먹은 후 배가 너무 아팠어요.
- ④ ㉣ 북극곰: 북극의 빙하가 녹으며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 통에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힘들고 괴로웠어요.
- ⑤ ㉤ 어린이: 공기 속에 섞인 미세 먼지와 화학 물질 때문에 호흡기병이 생겨 산소통 없이는 하루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정답:④)

28. 이 책을 읽고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글뿐 아니라 그림에서도 많은 정보를 알려 주는 책이라서 흥미로웠다.
- ㉡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상제 이야기와 연결해서 알려 주니 재미있었다.
- ㉢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아플 수 있으니 앞으로 채소와 고기 반찬만 먹어야겠다.
- ㉣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지구의 수많은 생물들이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니 너무 미안했다.
- ㉤ 내가 하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줄여줄여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천해야겠다.

(정답:㉢)

29.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실천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 급식 남기지 않고 먹기
- ㉡ 외출할 때 텀블러 챙기기
- ㉢ 일회용 물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 ㉣ 쓰던 물건을 친환경 소재 물품으로 새로 장만하기
- ㉤ 선물할 때는 여러 번 싸고 또 싸 정성스럽게 포장하기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③)

30. 밑줄 친 낱말이 꾸며 주는 말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 ① 연기 속 누군가를 깜짝 안았어.
- ② 커다란 카트에 물건이 수북이 쌓일걸?
- ③ 이 많은 쓰레기를 다 어떻게 처리하지?
- ④ 상제의 부름에 마이너 도사가 쏟알같이 달려왔어.
- ⑤ 시계 소리에 마이너 도사의 마음도 점점 초조해졌어.

(정답:①)

31. ㉠~㉣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 (㉠)은 만드는 데 5초밖에 안 걸리지만 썩는 데는 500년도 더 걸려.
- (㉡)에 오래 노출되면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성장을 방해 해 키가 덜 자라기도 해.
- 다양한 식물이나 새우 껍질, 게 껍데기 등으로 만든 (㉢)은 빠르고 쉽게 분해되어 생태계를 보호하지.

	㉠	㉡	㉢
①	미세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플라스틱
②	비닐	바이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③	비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④	스티로폼	환경 호르몬	바이오 플라스틱
⑤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바이오 플라스틱

(정답:⑤)

32. 이 책의 독자가 아래 뉴스를 보고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유럽의 시장을 가면 갓 수확한 채소와 과일을 포장하지 않고 매대에 올려 판매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무포장 상태로 진열된 과일과 채소를 골라 담을 때도 플라스틱 백이 아닌 천 주머니나 재사용 종이백을 사용하는 마트가 충북 청주에도 생겼습니다. 이곳은 ‘녹색특화매장’으로 ‘무포장 판매’, ‘리필 스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리필 스테이션은 샴푸, 린스, 바디워시,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필요한 상품을 재사용 용기에 담아, 측정한 무게만큼 계산합니다.

- <CJB청주방송>(2024.04.17.), 재구성 -

- ① 무포장 상태로 과일과 채소를 진열한다면 먼지가 앉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겠다.
- ② 과일과 채소를 천 주머니나 재사용 종이백에 담아 주면 비닐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 ③ 과일과 채소를 보관할 때도 비닐봉지 대신 천 주머니나 재사용 종이백을 사용하면 좋겠다.
- ④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필요한 만큼만 사고 용기도 재사용하게 되니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겠다.
- ⑤ 이런 가게가 늘수록 ‘마이너 도사의 쓰레기 줄여줄여법’에서 강조하는 ‘사는 것 줄여, 버리는 것 줄여, 재활용, 재사용’을 실천하여 지구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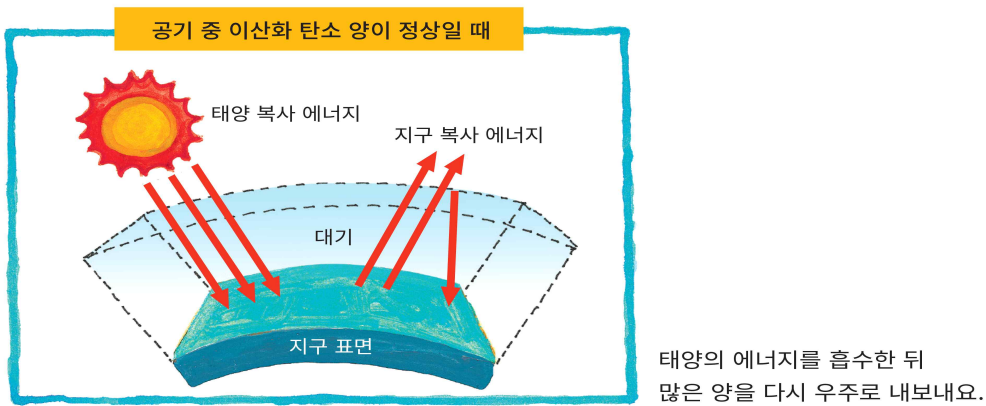
(정답:①)

33.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전기를 만들거나, 플라스틱 같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요. 이때 이산화 탄소가 많이 발생해요. 이산화 탄소 발생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한 뒤, 많은 양을 다시 우주로 내보내요. 덕분에 지구의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런데 이산화 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이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온실 효과는 이산화 탄소나 메테인에 섞인 탄소 때문에 발생하는데 메테인은 소가 방귀를 뀌 때도 나오거든요.

- 공기 중 이산화 탄소 양이 정상일 때



- 공기 중 이산화 탄소 양이 늘어났을 때



- 《탄소제로특공대 지구 똥구멍을 막아라!》(와이즈만) -

- ① 전기를 만들거나 플라스틱 물건 생산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가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키는구나.

- ② 소가 방귀를 뀌 때 나오는 메테인과 이산화 탄소의 꾸준한 증가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이었어.
 - ③ 적당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데 지나치게 많아지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 ④ 위 그림을 보면 공기 중 이산화 탄소가 많아질수록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해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
 - ⑤ 우리가 ‘쓰레기 줄여줄여법’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해도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 탄소를 막을 수는 없으니 이제 더 이상 공장을 짓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해.
- (정답:⑤)